

제9강 공자에 대한 평가

(1교시)

◆ 논어 강독

※ 학습목표: 논어를 바르게 읽으며, 그를 통해서 공자의 사상을 접해본다.

▲ 其爲仁之本與 (기위인지본여)

有子曰 其爲人也孝弟 而好犯上者 鮮矣 不好犯上 而好作亂者 未之有也,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.

(유자왈 기위인야효제 이호범상자 선의 불호범상 이호작란자 미지유야, 군자무본 본립이도생 효제야자 기위인지본여)

-유자가 말하기를, 그 사람 혹은 효제를 실천하면서, 윗사람을 범하는 경우는 드물다. 윗사람을 범하지 않으면서 난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직 없었다. 군자는 본래 밑뿌리에 힘쓰고, 밑뿌리가 서야 도가 산다. 효제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인의 뿌리가 아니겠는가?

-공자의 제자는 안회, 자로, 자공이 대표적이다. 안회는 인자하고 덕스럽고 지혜가 출중한 공자를 가장 많이 닮은 공자의 수제자였다. 자로는 사실상 공자의 친구이기도 했으며, 공자에게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다. 그러나 자로는 거칠다는 평을 받는다. 자공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. 그러나 너무 현실적이라는 평을 받는다. 자로는 칼로, 자공은 금전으로 공자를 지켰다고 볼 수 있다. 이들은 공자가 주유할 때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다.

-유약(유자)도 공자의 제자이지만, 공자 생애 그리 중요한 인물은 아니다. 많은 사람들이 유약과 증산 개통의 사람들이 논어를 편집했을 것이라 보는데, 공자의 말 다음에 유약의 얘기가 나온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준다.

-爲人은 사람됨이다. 孝는 부모에게, 弟는 형제에게 하는 것이다. 더 넓게 본다면 효는 연장자, 제는 동년배에게 하는 것이다. 즉 효는 수직적 관계, 제는 수평적 관계와 연관된다.

-道는 거창한 도가 아니라, 쉽게 줄기로 보아야 옳다.

▲ 논어의 맥락에 대한 해석

- 전체 맥락은 사실 **공자의 사상과 차이가 있다.** 이는 한시대의 생각으로 보인다. 한나라는 유교를 국가기반사상으로 채택하면서 가족질서와 국가질서의 일치를 내세운다. 가족부터 제대로 되어야 상하기반이 잡힌다는 논리이다. 그래서 이 문장은 한나라 시대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.

-인보다 효가 더 근본이라고 읽힌다. 그래서 爲를 ‘이다’로 해석하지 않고, ‘실천’으로 해석해야 한다. 그렇게 하면 ‘**인을 실천하는 것의 본**’으로 해석이 가능하며, 인이 가장 먼저 있게 된다.

(2교시)

◆ 공자의 사상과 평가

※ 학습목표: 공자에 대한 평가와 춘추전국시대의 양상을 살펴본다.

▲ 공자의 평가와 춘추전국시대

-춘추전국시대는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, 새로운 방식의 사회양식들이 나오게 된다. 이렇게 나오는 새로운 방식들이 창조적이고 희망차고 건설적이었다면, 옛 것을 붙들려는 공자의 노력을 비판할 수 있다. 하지만 춘추전국시대는 그렇지 못했다. **공자는 자신의 시대를 부정적으로 보았다.**

-서양의 부르주아계층과 비슷한 소인계층이 있었다. 하지만 부르주아계층이 봉건제와 귀족들을 물리치고 근대사회를 여는 역사적 소명을 해냈다면, 소인계층은 그렇지 못했다. 단지 줄부에 불과했다.

-물론 공자는 혁명적인 사람은 아니다. 문화적으로 혁명을 제시했지만, 정치적 혁명으로는 결국 가지 못한 사람이다.

▲ 논어 강독과 공자의 말

-子曰 巧言令色 鮮矣仁.(자왈 교언영색 선의인)

-말을 꾸미고 얼굴을 꾸미는 사람에 선한 인한 사람이 드물다.

▲曾子曰 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

(증자왈 오일삼성오신 위인모이불충호 여붕우교이불신호 전불습호)

-장삼(증자)는 유약과 더불어 공자가 죽은 후 공자의 학당을 이끈 사람 중 하나이다.

-차례로 남과의 관계, 친구와의 관계, 제자들과의 관계를 말한다. 그래서 남에 대해서는 충을, 친구에 대해서는信的, 제자에 대해서는 쥘을 대입하여 세 갈래로 반성해본다

▲子曰 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

(자왈 도천승지국 경사이신 절용이애인 사민이시)

-제나라 경공에게 한 말이다.

-여기서의 道는 導이다. 즉 동사이다. 千乘之國은 국가의 규모를 말한다. 제나라이다.

-敬은 내면의 경이 아니라 객관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 쓰이는 경이다.

-敬事而信은 제후에, 節用而愛人은 대부나 사와 같은 중간 지배계층에, 使民以時는 서민층에 대한 말이다. 또한 맥락에 따라서는 모두 경공에게 한 말일 수도 있다.